

전북자치도, 이차전지 산업 역량 홍보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 전북테크노파크·새만금개발청·군산시와 ‘전북공동관’ 운영
도내 8개 기업과 소재·부품·리사이클링 기술력·새만금 특화단지 투자 매력 등 어필

전북특별자치도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전북테크노파크,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다.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

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전시회로, 소형 배터리부터 에너지, 자동차, ESS·EV 중 대형 배터리까지 첨단 기술과 신제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해 500개사가

참가하며, ‘더 배터리 컨퍼런스’, 세미나, 잡페어,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기업 8곳과 함께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대주전자재료(주)

(실리콘 음극재) △(주)이큐브머티리얼즈(실리콘 음극재) △에바에너배터리솔루션(주)(분리막) △성일하이텍(주)(리사이클링) △(주)디엘(전해액) △도나(주)(배터리 진단) △(주)에너지11(나트륨전지) △LS MmM(전구체 소재) 등 총 8개사다.

특히 전북공동관에서는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등 전북특별자치도 5대 특례와 기업 친화적 정책,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2026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조성될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소개해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북공동관을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참여 기업들을 격려하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이차전지 연구 인프라, 인력 양성,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유치 강점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공동관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기업이 전북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인력 양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북공동관 운영을 하는 것이 도내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역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광역형 이동지원사업 ‘행복버스’ 출범식을 진행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

전북도-전북장애인복지관, ‘행복버스’ 출범식 진행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대상 연간 120여회 무료대여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전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광역형 이동지원사업 ‘행복버스’ 출범식을 진행했다.

‘행복버스’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특장버스를 도내 장애인시설 및 단체에 무상으로 대여(차량 및 운전인력)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사회복지법인 동안 양복규 이사장 등을 비롯한 장애인과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하였고, 기념식 및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안전한 행복버스 운영을 기원했다.

그동안 대다수의 소규모 장애인시설 및 단체 등은 리프트 특장차

량이 없어 장애인의 나들이나 야외활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약 2억5,000만원을 들여 리프트가 장착된 대형버스를 전북장애인복지관에 지원하고, 복지관에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행복버스’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장애인 등 이동편의 약자를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로서,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화·수·금), 연간 120여회의 사업을 진행예정이다.

차량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양식에 따라 전북장애인복지관에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 제도 확산 ‘맞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의 법적·윤리적 기준 마련... 제도 정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확산과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5일 도청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

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은 10.7%(2024년 12월 기준)로 전국 평균(6.2%)을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



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도내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등록 가능하며,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며 제도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119안전체험관, 2025년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사업 공모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이 주관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 구축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제품 사용 습관 형성을 돕고,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도 유용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신규 개관 예정인 안전체험관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기관에는 국비 1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119안전체험관은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어린이 안전마당을 체험코스 내에 △어린이 안전제품 전시관 △물놀이 안전체험장 △교통안전 체험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생활 속 다양한 안전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와 보호자들에게도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특수용접 전문인력 집중육성... 제조업 현장 인력난 해소

전북자치도, 2027년까지 3년간 인력 양성·취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용접)분야 전문인력 집중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산학융합원이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운영되며, 청년들에게 특수용접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공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수용접은 자동차·조선·건설기계·뿌리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지만,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청년층이 기피하면서 기업들

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기술 전문화와 숙련공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입사자 취업성공수당지원(1년 이상 근로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숙련공에게는 멘토지원금 △비숙련공과 숙련공 매칭이 완료된 기업에게는 이음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내 용접인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전북 도내 특수용접을 수행하는 산업(자동차, 조선해양기자재, 건설기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용접인력 채용

및 숙련공 멘토 지정이 완료된 기업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산학융합원 홈페이지(www.juc.or.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특수용접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년-기업 간 상생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산학융합원 일자리창출팀(☎063-472-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 1300명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신규 참여자 1,300명을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전북자치도가 동일한 금액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최대 500만원(원금 4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39세 근로 청년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두배적금 플랫폼’(https://double.j2030.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2700명 대상, 1인당 48만원 상당 지원... 31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총 12억 원을 투입하며, 2,700명의 임산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청일 기준 에코이몰(www.ecomall.com)에서 비대면 자재 검증을 완료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임신·출산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에코이몰(www.ecomall.com)에서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며, 이 중 20%(9만6,000원)는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한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5만 원부터이며, 추가 자부담 시 더 많은 금액을 구매할 수 있다.
공급 품목은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동물복지 인증품 등으로, 한우·우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공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경위 “지역맞춤형 치안 강화”

이연주 위원장, 덕진 솔내파출소 방문 소통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5일 덕진 솔내파출소를 방문해 경찰공무원 및 치안협력단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솔내파출소장과 유공 경찰관, 치안협력단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연주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 안전 확보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2명과 치안협력단체원 2명에게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설 명절 특별방범기간 동안 종합치안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양원진 순경은 “경찰관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연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경찰과 지역사회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단체 간 관계를 공고히 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